

반 기계 인간과 반 인간 기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동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리브투게더'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회장은 "우리 주변의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중소기업계도 인종차별 허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목했다. /중기중앙회



KB국민카드, 민관 데이터 융합 소상공인 지원

KB국민카드가 지난 19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SK텔레콤과 민관 빅데이터 상호 융합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공동 연구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 장홍성 SK텔레콤 광고데이터 CO(컴퍼니)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정 KB국민카드 플랫폼사업그룹장이 포즈를 취했다. /KB국민카드



에버랜드, 아기 판다 푸바오 온라인 돌잔치

아기 판다 푸바오가 랜선으로 첫돌 축하를 받았다. 삼성물산 에버랜드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푸바오 랜선 돌잔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푸바오는 일부 직원들과 함께 돌잡이와 생일 축하 편지, 선물 증정 등 첫 생일 잔치를 받았으며,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에서 팬들과도 만났다. /에버랜드



LG전자 롤러블 TV, 美 ABT 온라인 갈라쇼 등장

LG전자가 세계적인 발레단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와 손잡고 문화예술 마케팅을 이어간다. LG전자는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ABT 여름 갈라쇼에 참여해 행사 처음과 마지막에 세계 최초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LG전자



BTS, 유튜브 쇼츠서 '퍼미션 투 댄스 챌린지' 진행

유튜브는 오는 7월23일부터 8월14일까지 유튜브 쇼츠에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퍼미션 투 댄스 챌린지(Permission to Dance Challenge)'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에 맞춰 춤을 추는 이번 챌린지는 최근 전 세계에 베타 서비스가 출시된 유튜브 쇼츠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글로벌 댄스 챌린지다. /유튜브



이현청 총장의 교육 읽기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각 영역에 확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소위 ABC로 지칭되는 'AI(인공지능)와 알고리즘,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이다.

많은 미래학자가 4차 산업은 1~3차 산업과는 달리 혁명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는 우리 인간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 진화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특히 AI가 인간의 간단한 서비스 영역을 대체는 범위는 2023년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교육영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급속한 확산은 산업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초능력, 초지능, 초스피드 등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속도와 범위가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특히 교육에서도 교사가 없는 교실이 확산하고, AI 보조교사, AI 학

습자원, AI 상담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혁신이 예견된다.

더구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커다란 흐름 중 하나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시기가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30년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딥러닝의 경우 AI를 도저히 능가할 수 없고 지능 면에서도 AI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AI는 하루밤에 100만개의 아이템을 100만번 반복 학습할 수 있는데 반해, 인간은 100개의 아이템을 100번도 반복할 수 없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충격적인 변화다.

무엇보다 두려운 점 중 하나는 앞으로 AI집을 인간의 몸에 부착하면, 인간의 능력이 원래 능력의 수천배를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식 저장량이나 판단의 조합, 예측능력에서도 그렇다. 이 경우 인간은 '반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교과 내용을 외우거나 반복학습하는 대신 AI의 집을 통해 가장 빠른 시기에 쉽게 습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AI는 반인간기계라고 볼 수 있다. 2040년 경에는 AI가 더욱 진화돼 인간을 통제할 가능성마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진국 국가에서 이미 대규모 공장에 AI 로봇이 AI 생산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모습까지 등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예측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조정능력 등은 인간을 위협할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다.

요즘 주목을 받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조합해 물리적 현실(PR)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조합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10개 교실에서 동시에 강의할 수도 있고, 한 교수가 부산에 있는 대학과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동시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다. 반 기계 인간과 반 인간 기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아직도 교과서 위주, 수능 준비 위주, 교수자 위주, 학교교육 위주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사 교육에서부터 교과과정, 교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거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교육도 하루빨리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새로운 교수 방법과 인재상을 기르는데 더 많은 관심을 쓸 때이다. 대학 위기와, 초·중등 교육 어려움 등이 학령인구 감소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요인은 대체 고등교육과 플랫폼 중심의 학습 네트워크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의 시대는 지난 셈이다.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적시성 교육을 해야 한다. 한 줄로 세우기, 한 사람이 1등 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도와 협력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할 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은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도덕성, 창의성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력과 협동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도 반 기계화된 인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반 인간화된 기계'와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고 인간만의 차별화된 고유영역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치중할 때이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유익한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현대모비스, 우수 협력사에 계절과일 선물

국내 전역서 수박 7000통 구입 협력사·농가 상생 경영 선순환

현대모비스가 우수 협력사 총 250개 사에 계절 과일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지역 농가 수익에도 기여하며 상생경영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냈다.

2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19년째 전국 우수 협력사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여름철 계절 과일을 선물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협력사에 계절 과일을 선물하기 위해 광주, 전주, 울산, 대구, 창원 등 국내 전역에



현대모비스가 전국에 위치한 우수 A/S 부품 협력사 250여 곳에 계절과일을 전달했다.

서 7000통 이상의 수박을 구입했다. AS부품의 원활한 납입은 대리점 물류 순환과 고객들의 빠른 차량 수

리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우수 협력사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

기 위해 작은 성의를 담아 계절 과일을 선물해 왔다.

홍상수 현대모비스 AS부품구매실장은 "19년째 우수 협력사에 계절 과일을 선물하면서 협력 마인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AS 부품 이용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건전한 공급망을 구성하기 위해 동반성장 추진 체계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가진 직원을 4주간 대리점에 파견해 영업·판촉, 재고·물류 등 대리점 경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근무복·간판·차량 스티커 등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품도 적극 지원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차량 나눔사업' 80개 기관 선정

3차 심사 거쳐 복지기관에 전달 등록·탁송비 등 모든 비용 지원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사회공헌재단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올해 사회복지기관 80곳에 차량을 무상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2021 차량 나눔' 지원사업은 한국타이어의 핵심 비즈니스 특성인 '이동성(Mobility)'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 2008년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13년간 총 550여 대의 차량을



한국타이어 차량나눔 사업 차량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해 전국 사회복지 현장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편리한 이동을 돕고 있다.

이번 공모로 진행된 차량 나눔 사

업에는 전국 1277개 사회복지기관이 응모했다. 차량 지원 필요성과 합리성, 기관 신뢰성, 차량 관리 운영 능력 등을 기준으로 1~3차 심사·실사를 한 뒤 대상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는 차량을 1대씩 전달한다. 경차 78대와 전기차 2대다.

선정된 기관에는 지원 차량을 각 1대씩 전달하며, 차량 등록, 탁송 비용 등 차량 인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원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이어 교체 지원 및 경정비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인사

- ◆머니투데이방송(MTN) ◇보도본부 △기획제작부장 직무대행 윤영진 △뉴미디어제작팀장 김원중
- ◆한국임업진흥원 ◇상임이사 △상임이사 조현국
-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박은성

부음

▲한기희씨 별세, 김재영(로만티코디자 인스튜디오 대표)·주영·미리씨 모친상, 이영찬(KB손해보험 브랜드전략파트장)씨 빙모상 = 20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장지 피산호곡원, 031-708-4444